

KOBA 2025
3층 Hall D

방송장비 및 제작관

주요 전시 업체

동화AV, 산애택, 비에스솔루션스, 아진엔지니어링, 쿼텀코리아, 비텐트, 컴픽스, 포오에이코리아(FOR.A), 백두인터내셔널, 한국카나레, 씨아이에스엠텍(cismtech), 블랙매직디자인, 소니코리아, 노매틱(태남DVI), 트위그팜, 파나소닉코리아 등

3층 Hall D에서는 스틸 카메라 장비부터 8K 카메라까지 관련된 영상 장비와 관련 액세서리, 방송 제작 및 관리 시스템 등이 전시되었다. 블랙매직디자인은 Hall D에서 가장 넓은 부스로 관람객을 맞이한 반면, 파나소닉은 전년도 다 작아져 부스를 찾은 관람객은 아쉬움을 표현했다.

전시장 곳곳에는 삼각대와 조명기기, 짐벌을 비롯한 다양한 주변기기들이 전시되어 직접 동작해보며 체험해볼 수 있었다. 또한, 소니 부스 옆에서는 Creator Hub가 개최되어 영상 촬영 장비와 편집/조명 기술, 영상 제작 노하우 등의 세미나로 관람객의 몰입을 유도했다.



동화AV



동화AV 부스



Ikegami X750 / SHOTOKU TP200

동화AV는 Ikegami, SHOTOKU, Leader 등 주요 방송 장비를 전시하였다. Ikegami의 제품으로는 4K 카메라 UHK-X700/750을 선보였다. EFP와 스튜디오용으로 4K/HD 신호를 완벽 지원하며 향후 IP 신호 제작을 위한 네트워크 부분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SHOTOKU의 페데스탈과 비디오 헤드를 소개하며, TP200, TP500 두 종류의 페데스탈과 SX260 비디오 헤드를 통해 스튜디오 및 기타 제작환경에서 흔들림 없이 촬영할 수 있는 장비들을 전시하였다.

Leader의 IP Analyzer(LVB440), Sync & Test Generator(LT4670), Waveform Monitor(LPX500)를 통해 IP 신호부터 각종 신호를 측정하는 계측기를 전시하였다.

또한, VR, AR, XR 등의 버추얼 프로덕션을 위한 **Pixotope**의 제품을 소개하였다. 언리얼 엔진을 사용한 VFX in Camera 기능을 구현하고 다양한 화면 합성이나 가상공간을 표현하는 장비들을 전시하였다. 카메라 트래킹 장비 등 버추얼 프로덕션을 구축하는 훌륭한 솔루션을 소개하였다.



Pixotope System



Ikegami Camera Base Station BSX-100



Ikegami X700 / SHOTOKU TP500



Leader IP Analyzer(LVB440) / Sync(LT4670)

▶ 산애택



산애택 부스



Net Insight의 전송솔루션 전시

산애택은 고성능 모바일 네트워크 본딩 기반의 UHD 및 HD 영상 전송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이다.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인 '본딩(Bonding) 전송'은 두 개 이상의 인터넷 연결을 결합하여 더 넓은 대역폭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실시간 방송 및 고화질 영상 송출이 필요한 현장에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Univiso** 브랜드의 모바일 전송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본딩 네트워크 기술을 선보였으며, 특히 현장용 모바일 송신기 UV 시리즈와 고성능 본딩 라우터 UR500을 강조했다. 이들 장비는 영상 품질, 네트워크 안정성, 운용 편의성에서 모두 진화를 이루었으며, 방송 및 실외 통신 환경에 최적화된 최신 솔루션으로 주목받았다.

대표 장비로는 UV100Pro, UV600, UV800, UV2000 시리즈, 그리고 UR500 라우터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4G/5G 모바일 네트워크 본딩 전송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해당 장비는 1채널 HD 또는 4K 비디오의 저장과 실시간 인코딩을 지원하며, 최신 H.265와 H.264 인코딩 알고리즘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 유연한 영상 처리 성능을 제공한다.

UV 시리즈 장비는 3G, 4G, 5G 통신 모듈이 내장되어 있으며, 전용 안테나 매트릭스를 통해 우수한 무선 링크 성능을 발휘한다. 특히 본딩 셀룰러 기술을 적용하여 최대 0.5초의 초저지연 전송을 실현하였으며, 3G, 4G, 5G 뿐만 아니라 Wi-Fi, 유선 케이블, 위성 등 다양한 통신 링크를 하나로 묶어 실시간으로 안정적인 전송이 가능하다.

이번에 많은 관심을 받은 제품은 Univiso의 UR500 본딩 라우터이다. UR500은 실외 방송이나 이동형 네트워크 환경에서 고속 본딩 전송이 필요한 경우를 겨냥한 장비로, Univiso의 최신 본딩 기술인 iMux를 기반으로 한다. 최대 10개의 WAN 연결을 지원하며, 6개의 내장형 5G/4G 모듈, USB 포트, 유선 WAN, Wi-Fi까지 다양한 연결 방식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장비는 여러 회선을 하나의 안정된 네트워크로 통합하여 최대 200Mbps의 전송 속도를 제공하며, 배터리를 내장해 전원이 없는 환경에서도 약 5시간 동안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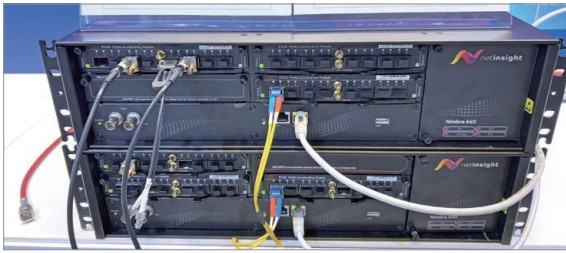
UV100Pro

UV800 4G



UR500 본딩 라우터

산애크 부스에서는 **Net Insight**의 Nimbra Edge와 Nimbra 640 등 고정형 IP 기반 미디어 전송시스템에 특화된 솔루션 장비도 전시되었다. Nimbra 640은 다중 서비스 미디어 전송을 위한 비용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한 미디어 액세스 게이트웨이로, Nimbra MSR 기능을 통해 QoS가 지원되는 양방향 비디오와 이더넷 전송을 제공하며, 고품질 저지연 JPEG2000 압축을 통한 지원하여 원격 제작과 라이브 이벤트 솔루션이다.



Nimbra MSR640



Nimbra Edge

비에스솔루션스

비에스솔루션스가 이번에 소개한 주요 제품은 AI Media AI 기반 언어 자막 솔루션, Imagine Selenio Network Processor, Media Proxy Server이다. 각각의 제품은 방송 환경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최신 기술을 통해 더 나은 방송 품질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비에스솔루션스 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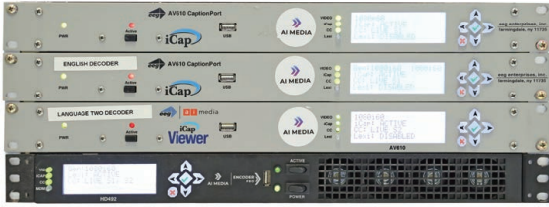
AI Media AI 기반 언어 자막 솔루션은 실시간으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자막 형태로 표시하는 기술이다. 이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정확도와 빠른 처리 속도이다. AI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막을 제공할 수 있어, 뉴스 방송, 스포츠 중계, 콘서트 방송 등 다양한 방송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 기술은 특히 다국적 이벤트나 글로벌 시청자를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자막을 제공할 수 있어, 언어 장벽을 넘어서 방송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실시간 자막을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방송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AI 기반 언어 자막 솔루션은 특히 실시간 방송에서 강력한 기능을 발휘한다. 뉴스 방송과 스포츠 중계에서는 빠르게 진행되는 방송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자막으로 변환하여, 시청자가 쉽게 따라갈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콘서트 방송이나 대형 이벤트에서도 다국적 관객을 위한 실시간 자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시청자층을 확대할 수 있다. 이처럼 AI 기반 언어 자막 솔루션은 방송의 품질을 높이고, 더 많은 관객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AI Media AI 기반 언어 자막 솔루션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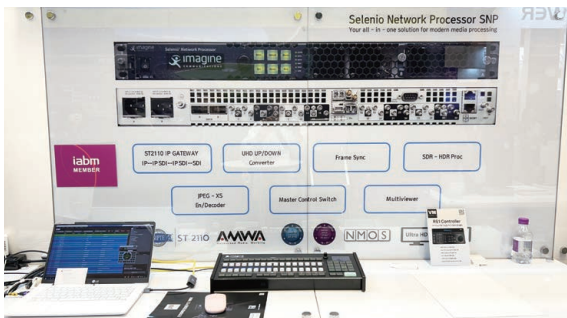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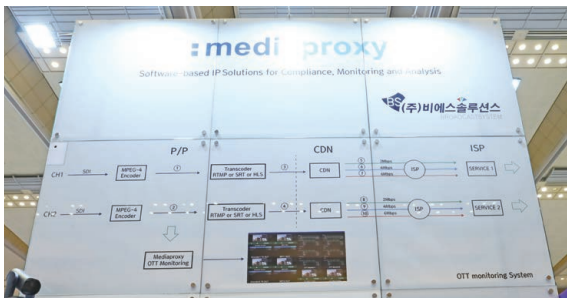
AI 자동번역 HW

Imagine Selenio Network Processor는 고성능 비디오 및 오디오 처리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세서로, 방송 환경에서 다양한 포맷 및 스트리밍 기능을 지원한다. 이 제품은 방송 네트워크에서 효율적으로 연결되고, 멀티포맷 및 멀티스트리밍을 처리할 수 있어 IP 기반 방송 시스템에서 뛰어난 안정성을 제공한다. 네트워크 기반의 전송과 프로세싱을 최적화하여 고화질 방송 송출을 지원하며, 방송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다.

Media Proxy Server는 방송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는 서버 시스템으로, 특히 네트워크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서버는 실시간으로 방송 데이터를 전송하고, 다수의 콘텐츠를 처리할 수 있어 다양한 방송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Media Proxy Server는 고화질의 비디오 및 오디오 신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며, 방송 품질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송출을 돕는다.



Imagine Selenio Network Processor



Media Proxy Server 개념도

아진엔지니어링

아진엔지니어링은 프롬프트 시스템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방송사와 관공서 등에 다수 납품된 실적이 인상 깊었다. 특히 연설용 프롬프트, 고화도 방송용 프롬프트와 이동식 프롬프트 등 사용 장소와 용도에 맞춰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어 사용자의 니즈에 맞춰서 구매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었다. 한 제품은 카메라에 연결해서 프롬프트 워드만 보여주는 방식에서 현재 시각과 카메라 출력을 볼 수 있는 모니터와 함께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자의 편리함을 고려한 제품으로 보였다.

이번 KOBA 2025에서는 '8.4인치 렌즈 부착용 프롬프트'라는 신제품을 가장 크게 어필하고 있었는데 작은 사이즈와 이동 가능한 하드 케이스가 방송 중계 시스템에 접목해 볼 만한 제품이었다.



퀀텀코리아

퀀텀코리아는 이번 전시에서 방송 및 미디어 산업을 위한 장기 콘텐츠 보존과 디지털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사의 대표 솔루션인 Scalar i7 RAPTOR 테이프 라이브러리와 ActiveScale Cold Storage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중심으로 엔드투엔드 아카이빙 플랫폼을 제시했다.

퀀텀 관계자는 “Scalar i7과 ActiveScale은 단순 저장 장비가 아닌, 보안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스마트한 보존 인프라의 중심”이라며, “복잡한 관리와 고비용을 요구하던 과거의 아카이빙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Scalar i7 RAPTOR,

엔터프라이즈급 테이프 아카이빙의 새로운 기준

퀀텀이 선보인 Scalar i7 RAPTOR는 최대 36PB 저장 용량을 자랑하며, LTO-10 지원, Active Vault, Capacity-on-Demand(CoD) 등 다양한 기능으로 방송국, 대규모 콘텐츠 제작사, 공공기관의 안전하고 유연한 데이터 보관 요구를 충족시킨다. 특히, 랜섬웨어 대응 기능으로 주목받은 Ransom Block, Logical Tape Blocking, MFA 및 IP 접근 제어 등은 방송 콘텐츠 보호에 있어 핵심 보안 수단으로 강조됐다.



부스에 전시된 Scalar i7



퀀텀코리아 부스

ActiveScale Cold Storage,

자동 마이그레이션 기반의 클라우드형 아카이빙

방문객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끈 솔루션은 단연 ActiveScale Cold Storage였다. 이 플랫폼은 NVMe 디스크, HDD, 테이프 스토리지를 통합하는 계층형 구조로, 자주 접근되는 영상은 고속 디스크에, 장기 보관용 콘텐츠는 설정 없이 자동으로 테이프에 계층화되어 저장된다.

특히 방송국처럼 콘텐츠가 매년 누적되면서도 자주 꺼내지 않는 환경에서는 이 구조가 매우 운영 효율성이 높다. 기존의 LTO 테이프 아카이빙 시스템은 세대 교체 시마다 데이터를 새 매체로 수작업 마이그레이션해야 했으나, ActiveScale은 이 과정을 자동화한다. 데이터는 오브젝트

단위로 관리되며, 플랫폼이 내부적으로 데이터의 위치와 테이프 세대 변경을 자동 추적·처리한다. 결과적으로 운영자는 테이프 세대 변경을 신경 쓸

필요 없이 보존 전략만 수립하면 되는 구조다.

비덴트



비덴트 부스

비덴트는 자사의 방송용 모니터 브랜드인 TVLogic 제품군을 선보였다.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방송용 모니터 브랜드 중 하나인 만큼 현장을 찾은 방송 관계자들과 업계 전문가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비덴트 부스에서는 최신 방송 제작환경에 최적화된 다양한 TVLogic 모니터 라인업을 한 곳에서 비교하면서 볼 수 있었다. TVLogic은 크게 세 개의 Zone으로 구성하였다. Viewfinder형 Field Monitor를 전시한 곳과 LVM, LUM, 그리고 Rack Mountable Monitor들을 전시한 곳이다.



다양한 사이즈의 랙모니터들



좌측 SVM 시리즈, 중앙 LEM-320A, 우측 LXM 시리즈

먼저 필드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모니터인 F 시리즈와 Rack에 장착해서 볼 수 있는 R 시리즈는 5인치, 7인치, 10인치로 각각 3가지 크기로 전시가 되어 있었다. 이 중 **F-10H**는 TVLogic이 오랜 기간의 소형 제품 신제품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이다. 10.1" Panel은 1,400nits의 밝기를 가졌고, 1,800nits의 7" 제품인 F-7HS와 견주어도 밝기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었다. 기존과 달리 Panel과 베젤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Panel과 전면 케이스 전체를 커다란 한 장의 투명한 재질로 덮어버려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을 가지게 했다.

보편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2K/HD용인 LVM 시리즈는 9인치, 18인치, 24인치, 32인치로 4가지 크기로 제작되어 판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까지는 최상위 라인업으로 4K/UHD용으로 제작되는 LUM, LXM 시리즈가 9인치에서 55인치까지 다양한 모델을 선보였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하이엔드 모니터인 SVM 시리즈를 부스에서 볼 수 있었다. LUM 시리즈가 싱글 채널 모니터였던 반면, LXM과 SVM 시리즈는 OS를 모두 바꾼 TVLogic의 새 라인업으로 LXM 시리즈가 가장 상위 등급인 건 변함이 없으나 염가형 버전으로 SVM 시리즈를 새로 출시했다.



1,400nits의 밝기를 보장하는 신제품 F-10H



LXM-180P/240P/320P



LXM-240P

SVM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그야말로 바닥부터 새롭게 설계된 메인보드다. 기존 LVM 대비 훨씬 빨라진 반응 속도와 편의 기능, 그리고 뛰어난 안정성이 보완된 제품으로 태어났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것은 일종의 체질 개선이 된 새로운 제품의 성격을 띄는 것이며, 만약 TVLogic 제품에 익숙한 사용자라면 SVM의 강력함과 부드러움에 크게 놀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실제로 많은 관객들은 SDI A와 SDI B간의 전환 속도, 정밀해진 Waveform과 Vectorscope, Button의 기능을 설명한 글자에 조명이 켜지는 등의 세심한 변화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LXM 시리즈는 4CH Quad 멀티뷰 모니터이면서 모델군에 따라 4K 패널을 사용한 제품도 있으며, SVM은 패널은 모두 FHD이지만 12G-SDI 입력이 가능해지면서 2CH 듀얼 멀티뷰 기능을 추가한 면이 대표적이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4분할 화면의 각 Source별로 별도의 EOFT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Software적으로 HDR/SDR Comparison을 가능케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된다. Channel별 Source 정보를 보여주는 Info 기능, SFP와 HDMI까지 모두 섞어서 구현할 수 있는 Multi-View 기능, Button에 LED 조명이 들어오는 것, 다양한 Custom Function 지정 기능, 영상을 Capture해서 저장했다가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영상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Capture & Overlay 기능, Custom LUT와 3D LUT 기능, 그리고 LUT가 적용된 채로 영상을 출력하는 Processed Out 기능 등은 왜 LXM이 Top Line인지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컴픽스



컴픽스 부스



ODIS 4K System 및 NPS 4K Edition

컴픽스는 ODIS 4K System, NPS 4K Edition/NPS-CG, Bellus Series, 천하통일 UHD600/HD600, UHD/HD Scroll System, Media Wall System을 선보였다.

ODIS(On-air Design Innovation Solution)

ODIS는 최적의 방송 환경과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는 4K 기반 차세대 Full 3D 문자발생기이다. 2D/3D 객체의 실시간 표현, 다양한 Shader, 실시간 Material 지원 등 다양한 효과와 기능으로 방송을 통한 시청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NPS 4K Edition/NPS-CG

NPS 4K Edition과 NPS-CG는 편집된 동영상에 CG에서 작업된 자막을 적용하고, 자막의 타임코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여 편집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클린 비디오를 보존하고, 잦은 편집으로 인한 영상 화질의 열화 등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방송 제작 프로세스를 간소화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이는 Tapeless 제작 방식의 현재 방송 트렌드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다.

UHD/HD Scroll System

UHD/HD Scroll System은 자막 프로그램을 이용한 별도의 제작이나 편집 없이 시리얼 통신으로 수신한 스토리나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 스토리를 불러들여 방영하는 자동 자막 송출 시스템이다. 다중 스크롤, 로고, 시계, 연령등급, 박스정보를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송출할 수 있어 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애니메이션 로고도 지원한다.

포오에이코리아(FOR.A)

FOR.A는 방송 및 영상 처리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방송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FOR.A의 장비를 사용해보았을 정도로, 이 회사는 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고품질 방송 기술과 다양한 프로덕션 환경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뉴스 방송, 스포츠 중계, 공연,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술력이 활용되고 있다. FOR.A는 방송 기술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고급 장비와 솔루션을 꾸준히 개발해오고 있다.



FOR.A 부스

이번에 FOR.A는 HVS-Q12, MCC-UHD 프레임 컨버터, EDA2100을 주력 제품으로 선보였다. 이 중 가장 중심이 된 제품은 **HVS-Q12** 스위처이다. HVS-Q12는 4K 및 HD 방송 환경에서 고성능을 발휘하는 영상 스위처로, 12G-SDI를 통해 고해상도 영상 신호를 처리하며, IP 기반 전송 시스템을 지원해 빠르고 안정적인 영상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트랜지션과 영상 효과를 제공하여 창의적인 방송 연출을 지원하고, 다양한 입력 포맷과 다중 채널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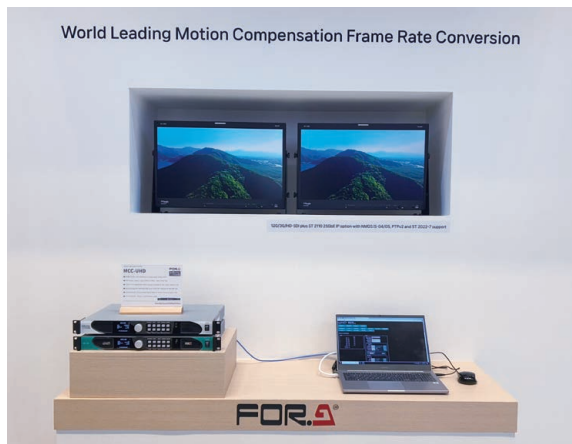
HVS-Q12 패널



HVS-Q12 본체

MCC-UHD는 4K 해상도 및 다양한 영상 포맷 간 변환을 지원하는 고성능 프레임 컨버터이다. 실시간 포맷 변환, 업스케일링 및 다운스케일링 기능을 통해 방송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해상도의 콘텐츠를 처리할 수 있다. 빠른 영상 처리 속도와 고화질 출력이 강점이다.

MCC-UHD 프레임 컨버터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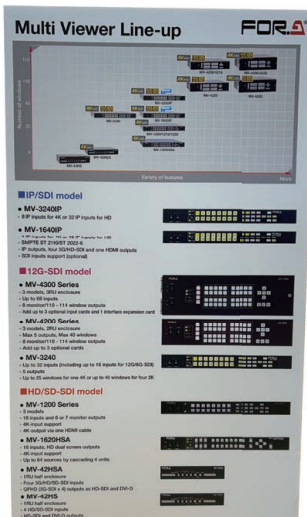


MCC-UHD

EDA2100은 IP 기반 시스템을 통해 비디오 및 오디오 신호를 안정적으로 분배하는 실시간 신호 분배기로, 다양한 입력 및 출력 포맷을 지원한다. 방송 환경에서 요구되는 신호 분배 및 관리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 IP 인프라에 최적화된 장비로 평가된다.



EDA2100



멀티뷰어 라인업

이와 함께 FOR-A는 이번 KOBA에서 **MV-4300**과 **MV-4200**을 포함한 멀티뷰어(Multiviewer) 제품군도 함께 선보였다. MV-4300은 12G-SDI, IP, MADI 등 다양한 신호 포맷을 지원하며, 최대 16채널의 비디오 신호를 고해상도로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 4K 및 HD 환경 모두에 대응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이 중요한 방송 현장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IP 기반 멀티뷰어 기능도 지원하여 차세대 방송 환경에 적합하다.

MV-4200은 MV-4300보다 컴팩트한 구성으로, HD/SD 환경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한다. 최대 4채널 동시 표시가 가능하며, 간단한 조작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인 영상 확인이 가능하다. 중소 규모의 제작 환경이나 서버모니터링 용도로 적합하다.

FOR-A는 이번 KOBA 2025를 통해 최신 영상 스위처, 포맷 컨버터, 멀티뷰어 등 방송 제작에 필수적인 고성능 장비를 대거 선보이며, IP 기반 제작환경에 대응하는 기술력을 강조하였다. 방송 품질과 제작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FOR-A의 솔루션은 변화하는 방송 시장에서 실용성과 신뢰성을 겸비한 선택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백두인터내셔널

백두인터내셔널은 이번에 FUJINON의 렌즈 3가지 제품군을 전시해서 설명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꾸며진 부스는 가정집 주방 컨셉으로 모델과 함께 조명, 렌즈, 카메라 등을 세 가지 각도에서 설치했고, 각도마다 주력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렌즈를 다르게 설치하며 각각의 모니터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백두인터내셔널 부스

먼저 **UA24x7.8BERD** 렌즈는 방송 ENG 및 EFP 현장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고성능 4K 방송용 24배 Zoom lens로 약 1.98kg로 타 렌즈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이 장점으로 꼽히는 모델이었다. 이동이 잦은 뉴스 취재 등에 유리해 보였고, 이미지 전역에서 높은 해상도와 콘트라스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에 충분해 보였다.



UA24x7.8BERD 방송용 렌즈

두 번째로는 FUJINON HZK25-1000mm 렌즈는 방송과 시네마 제작을 위한 최고 수준의 망원 박스형 줌렌즈로 초점거리가 25mm~1000mm로 40배 줌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Super 35 및 풀프레임 센서를 모두 지원해서 대형 스포츠 경기, 콘서트, 다큐멘터리나 영화 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해 보였다.

마지막으로는 HZK-100mm 모델로 7.1배 줌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방송용 제품이었다. 이 모델 역시 방송과 시네마 쪽에 주로 사용되며 특히 BCT(Breathing Compensation Technology) 기능이 탑재되어 포커스 이동 시 화각 변화를 최소화하는 특수 기능이 있는 것이 장점이었다. Fujinon의 제품군은 고품질 영상 제작을 원하는 전문가들에게서 많은 선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방송, 시네마 업계 종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사용하기에 진입장벽이 꽤 있어 보였다.



HZK25-1000mm 줌렌즈

태남디비아이(NOMATIC)

태남디비아이는 Matrox 제품이 아닌 미국 노매틱 사의 국내 공식 총판으로 노매틱의 카메라 가방을 선보였다. 노매틱은 2019년부터 사진작가이자 현재 590만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인 피터 맥키넨(Peter Makinon)과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카메라 가방을 출시해 오고 있다. 노매틱 PM 카메라 가방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내부공간을 설계할 수 있는 래더(Ladder) 시스템, 다양한 메쉬포켓 제공, 가방에 장착된 스트랩으로 간단하게 가방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퀵래치(Quick-Latch) 시스템 등이 특징이다. 많은 매니아가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카메라 가방으로 인식되고 있다.



태남디비아이 부스



NOMATIC의 PM 카메라 가방들

부스에서는 다양한 카메라 슬링백과 카메라 백팩이 전시되었고, 자유롭게 착용해보며 노매틱 가방의 매력에 빠져드는 경험을 제공했다. KOBA 마지막날에는 특별 할인 판매를 진행해 평소 노매틱 가방을 구매하고자 했던 유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



편의성으로 가득한 PM 카메라 슬링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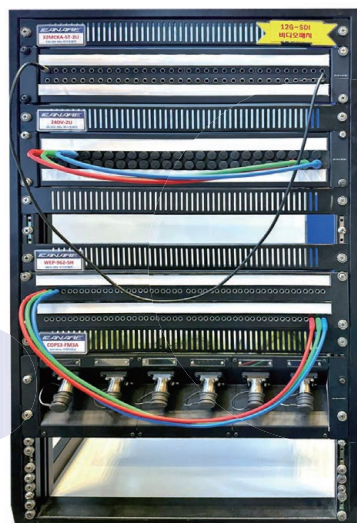
한국카나레

방송 업계는 HD를 넘어 대화면에서도 선명하고 빠른 영상 전송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Canare는 4K 및 8K 영상 전송을 위한 12G-SDI 전송 규격에 부합하는 전송 케이블, 패치 패널, 광 전송 장비, 컨버터 등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또한 굴곡에 강한 광파이버가 많이 개발되면서 스튜디오는 물론 중계방송 현장에서도 Canare 광케이블과 광 전송 장비가 탁월한 성능과 안정성을 가지고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이번 KOBIA 2025에서 Canare는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한 작업성을 갖춘 광복합 카메라 커넥터 패널, 12G 전송을 위한 비디오 패치 및 케이블, CanaBridge 미니 컨버터, 고강도 광케이블 및 DMX 케이블 등을 선보였다.



한국카나레 부스



Canare 12G 비디오 패치 패널

트위그팜(Twigf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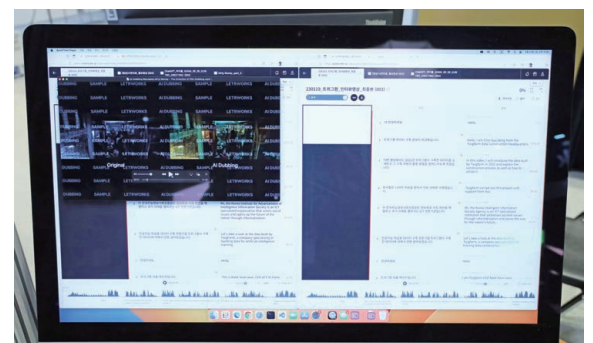


트위그팜 부스

ChatGPT와 같은 LLM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은 번역뿐 아니라 자막 파일 생성, 내용에 적합한 이미지 제작, 더빙용 음성 생성까지도 한 번의 명령으로 처리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영상의 현지화 작업에서는 아직 여러 반복적이고 번거로운 일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트위그팜은 콘텐츠 현지화(localization) 분야에서 영상 현지화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AI 기반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콘텐츠 재창작 솔루션 **레터웍스**를 선보였다. 2023년에 출시한 레터웍스는 영상 현지화에 필요한 전사(영상의 대사를 문자로 옮겨 적는 업무), 번역, 자막/더빙 생성, 화질 보정, 프로젝트 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제공한다. 트위그팜은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ChatGPT와 제미니(Gemini) API를 연동하여 번역 성능을 혁신적으로 개선했으며, 전사와 번역 절차를 통합하여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전시 부스에서는 이러한 레터웍스 솔루션을 시연하고 있었는데, 번역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결과가 아닌 영상 내용에 어울리는 단어와 문구가 선택되어 자연스러운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레터웍스 LLM 자막 번역기

씨아이에스엠텍(cismtech)



씨아이에스엠텍 부스



iBIS+, iCMS+, iNEWS+ 시연 모습

씨아이에스엠텍은 국내 방송 IT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KOBA 2025 전시회를 통해, 핵심 솔루션인 송출 · 편성 · 운영 · 콘텐츠 관리시스템을 Web 및 Cloud 환경에 최적화한 차세대 버전을 선보였다. 기존 제품들인 iBIS+, iCMS+, iNEWS+를 업그레이드하여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 기능과 웹 중심의 사용자 환경(UI/UX)을 결합하였다. 그래서 방송 시스템의 유연한 운영과 효율적인 콘텐츠 관리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방송 송출하는 솔루션인 iMediaAir+를 선보였다. iMediaAir+는 기존의 iAutomation 레거시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설계한 솔루션으로, 송출 인프라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환경에서도 서버리스(Serverless) 방식으로 방송 송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프로그램 송출부터 채널 감시, 다채널 모니터링까지의 모든 기능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에 구현하였다. 클라우드 기반 구성 덕분에, 장비에 대한 물리적 제약 없어 기존 인프라

와의 하이브리드 연동도 유연하게 지원되어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전략에 실질적인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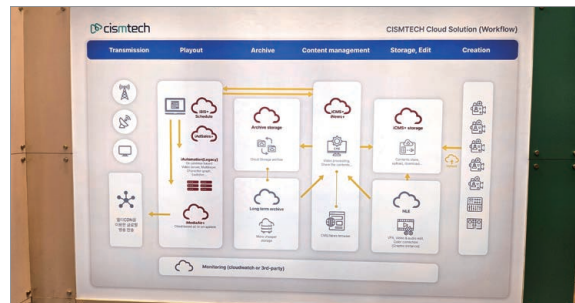
AI 기능 업그레이드로 다양한 자동화 기능이 함께 탑재되었다. 특히 영상 콘텐츠의 분석과 운영에 필요한 주요 기능을 자동화함으로써, 방송사 및 송출 대행사에서의 콘텐츠 검수, 다국어 편성, 자막 제작 등의 업무 효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iMediaAir+ 6채널 모니터링 화면



iMediaAir+ 6채널 운행표 화면



Cloud System Solution Workflow



iNEWS+ 시연 화면

파나소닉



파나소닉 부스

파나소닉은 이번에 부스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출품하였다. 많은 참관객은 파나소닉의 부스가 기존의 자리가 아닐 뿐더러 작아진 전시 내용에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부스 전시에서는 파나소닉의 루믹스(LUMIX) 카메라와 렌즈, 방송용 카메라, PTZ 리모트 카메라, 4K 캠코더, KAIROS IT/IP 플랫폼 등 알차게 준비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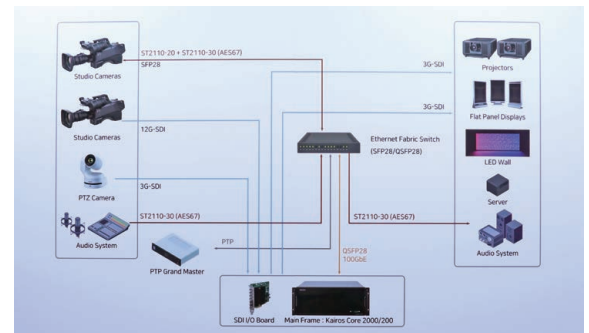
부스 중앙에서 새롭게 선보였던 **AG-CX20**은 4K 60p 4:2:2 10bit 인터널 레코딩의 고화질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5축 하이브리드 O.I.S 및 열 분산 설계, NDI HX2, 3G-SDI 출력, 듀얼 SD 카드 슬롯, 내장 ND 필터 등 작은 바디에 고화질과 네트워크 연결성까지 고려한 고성능 캠코더이다.



PTZ 리모트 카메라에서는 파나소닉 PTZ 리모트 카메라 주요 라인업(AW-UE160, AW-UE150, AW-UE100, AW-UE80, AW-UE20 등)이 전시됐다. UE160은 3DNR(3Dimensional Noise Reduction)으로 정지 및 움직이는 영역을 구별하는 성능을 보다 높여 노이즈 제거와 입체적인 묘사에 효과적이고, 광학식 로우패스 필터(Optical Low Pass Filter, OLPF)를 탑재해 모아레 현상을 경감시킨다. AF 성능의 경우, 연산 처리의 고속화와 AF 알고리즘의 개선으로 피사체의 움직임과 특성을 감지하는 성능이 향상돼 고정밀 AF를 구현한다. 특히 UE160은 위상차 검출 방식(Phase Detection Auto-Focus, PDAF)을 채택하여, 움직이는 피사체 트래킹 성능을 대폭 향상시켰다.



KAIROS 컨트롤 패널 24 XPT



KAIROS를 이용한 영상 제작

KAIROS는 IP/IT 기반의 비디오 제작 솔루션 시리즈로 방송사의 표준 베이스밴드 신호인 12G/6G/3G-SDI를 비롯해 SMPTE의 IP 방송 규격인 ST 2110과 범용 IP 비디오 제작을 위한 NDI, SRT 등 다양한 IP/IT 비디오 인터페이스 입출력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고성능 GPU에 의한 비디오 프로세싱을 통해 M/E와 키 사용에 제한이 없는 언리미티드 레이어(Unlimited Layers)를 제공하며, 비디오의 해상도와 포맷에서 자유로운 ‘캔버스(Canvas)’ 방식의 화면 구성을 통해 유연한 영상 제작을 지원한다.

소니코리아

소니코리아는 이미징 솔루션 부문과 라이브 제작 부문으로 구성해 다양한 니즈에 맞는 콘텐츠 제작 장비부터 효율적인 워크플로우 솔루션을 선보였다. 소니 알파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부터 78종의 미러리스 E-마운트 렌즈, 시네마 라인까지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고 소비자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소니코리아 부스

IP 라이브 솔루션 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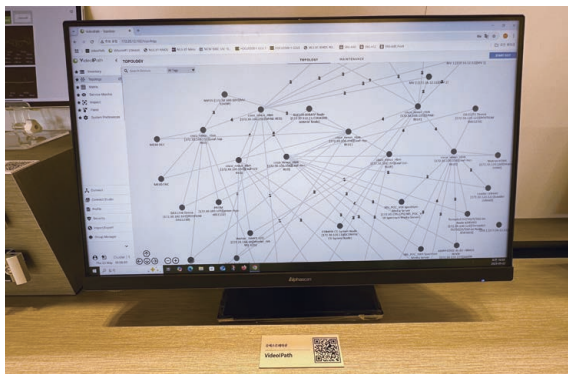
소니는 HD, 4K, 8K 및 HD에 동시 대응 가능한 IP 기반의 방송제작시스템을 소개했다. 이 시스템은 기존 SDI 기반 인프라를 통합된 IP 네트워크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방송 제작환경을 제공하며 특히, SMPTE ST2110 규격을 적용하여 표준화된 IP 방송 제작 시스템을 구현했다. 새로 업데이트된 라이브 프로덕션 스위처 MLS-X1용 버전 2.3 펌웨어는 조건부 매크로 기능으로 운영자로 하여금 스위처 상태에 따라 작업을 사전에 구축하도록 지원해, 제작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 감독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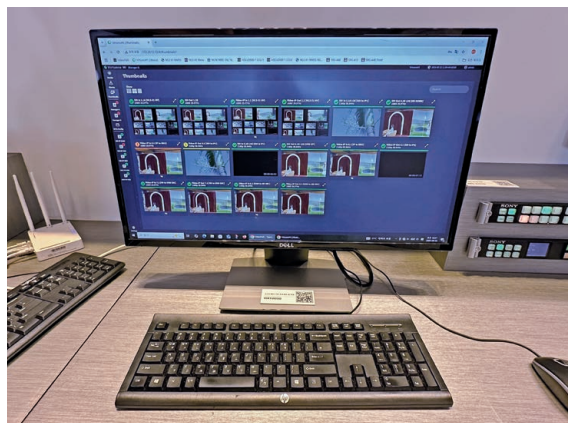
라이브 프로덕션 스위처 MLS-X1 구성



VIRTUOSOS / VideolPath



오케스트레이션, VideolPath



소프트웨어 기반 프로세싱 및 전송, VIRTUOSOS

버전 1.1 펌웨어 업데이트를 마친 CNA-2 카메라 제어 네트워크 어댑터는 글로벌 멀티 카메라 시스템 프로토콜을 통해 여러 제작 사이트의 통합 관리를 지원하며,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와 같은 환경에서 다수 카메라의 원격 조종을 가능하게 한다.



CNA-2 카메라 제어 네트워크 어댑터 및 모니터링

차세대 시네마 및 시스템 카메라 라인업

소니는 HDC-5500, HDC-3500, HDC-3100 등 새로운 시스템 카메라 라인업을 소개하여, 다양한 방송 제작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과 시네마 카메라를 선보였다.



4K 시스템 카메라 HDC-5500



4K 시스템 카메라 HDC-3200



베니스 익스텐션 시스템 미니



시네마 카메라 BURANO

작년에 이어 AI 기반 자동 프레임링 및 추적 기능이 탑재된 BRC-AM7 4K PTZ 카메라도 볼 수 있었다. 올 7월 출시 예정인 새로운 버전 2 펌웨어는 다자 프레임링, 안면 등록, 향상된 추적 범위, 리드 룸 효과를 탑재했으며, 원격 제작을 위한 CNA-2와의 호환성도 추가된다고 한다.



4K 60p HDR AI Powered PTZ 오토프레임링 카메라 BRC-AM7

블랙매직디자인



블랙매직디자인 부스

블랙매직디자인은 보유하고 있는 영상 장비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매년 KOBA에 참가하는 업체 중 부스 규모가 Top 5 안에 드는 업체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카메라와 시연 스튜디오, 방송 및 라이브 스트리밍 스위처, SDI 비디오 라우터, 비디오 레코더, 멀티뷰어 모니터링, 색보정 편집기 등 매우 다양한 영상 장비들을 선보였다.



URSA Cine Immersive 카메라 (3D)

카메라 장비 중 NAB 2025에서 공개되었던 **URSA Cine Immersive 카메라**가 눈길을 끌었다. 이 모델은 Apple Vision Pro용 Apple Immersive Video를 캡처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3D 몰입형 이미지 캡처용 듀얼 8K 센서를 탑재한 세계 최초의 몰입형 시네마 카메라로 3D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방송 제작 스위처 장비에서도 **ATEM 4M/E Constellation 4K Plus**라는 업그레이드 모델을 출시했다. 이 모델은 표준 변환을 지원하는 80개의 12G-SDI 입력과 48개의 전

용 12G-SDI 출력, 16개의 ATEM 첨단 키어, 4개의 멀티뷰, 총 12개의 DVE를 지원하는 2개의 SuperSource를 탑재한 4RU 크기의 초대형 4M/E UHD 모델이다.

라이브 스트리밍 스위처도 주목을 받았다. **ATEM Mini Extreme ISO G2**라는 모델로 8개의 HDMI 입력과 스트리밍 엔진, 멀티뷰, 녹화 및 재생용 Thunderbolt를 탑재한 강력한 라이브 스위처이다. USB 웹캠 및 DVE, 크로마 키, 미디어 플레이어, 8개의 모든 비디오 입력을 개별 녹화할 수 있는 ISO 녹화 기능도 지원한다.



방송 제작용 4K 스위처



ATEM Mini Extreme ISO G2



위에서 내려다 본 블랙매직디자인 부스

부스 한쪽에서는 자사의 영상 편집 및 색보정 프로그램인 **DaVinci Resolve**의 기능에 대한 시연 및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DaVinci Resolve는 영상 편집 및 특수효과, 모션 그래픽, 색보정, 오디오 후반 작업이 모두 가능한 Blackmagic의 대표적인 편집 프로그램이다.

특히 방송 제작에서는 색보정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데 Relight FX 및 직관적인 피사체 제거 기능, 3D 깊이 지도 효과, 트래킹, HDR 그레이딩 등을 제공함으로써 영상 후반 제작에 필수적인 장비가 되었다. 📺



블랙매직디자인 카메라 시연장



DaVinci Resolve 강연 및 시연



DaVinci Resolve 마이크로 컬러 패널